

수능완성 읽기

안녕하세요, 김양봉입니다.

국어 공부를 혼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수능완성 읽기’라는 제목 그대로 그냥 수능완성을 읽을 계획입니다.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이런 단어, 저런 문장에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은지. 또 어떤 부분에서 힘을 주고, 어떤 부분에서는 힘을 빼고 읽어도 괜찮은지 등등 지문 분석이나 해설이 아니라, 제가 지문을 읽을 때 사고의 흐름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다음 규칙을 바탕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1. 한 번에 최대 두 문장까지만 읽고 작성한다.
2. 한번 작성한 내용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 (오타 수정 제외)
3. 사후적으로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내용이 체계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로 읽으면서 제 생각을 보여드리기만 할 거거든요.

당연히 잘못 생각한 부분도 있겠지만, 규칙에 따라 수정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건 그저 수년간 많은 글을 읽고 많은 문제들을 풀어오면서, 또 직접 문제를 출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을 독해 도구나 방법론에 대한 암기 없이, 그냥 가볍게 저와 함께 수능완성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통해 지문에서 등장했던 논리, 배경지식, 연계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제시했습니다.

피드백은 자료의 내용, 구성, 형식 등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든 언제나 감사히 받겠습니다.

수능완성 읽기

유형편 02. 이자의 정당성과 법정 최고 금리

[1문단-1]

(가) <자금의 소유와 사용에 따른 대가인 **이자**>의 **정당성**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자 = 자금의 소유와 사용에 따른 대가

지난 지문을 보면서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독서 지문에서는 이런 형식의 문장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한 문장에 둘 이상의 정보를 넣어둔 문장**이요. 위 문장은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 ① 이자는 자금의 소유와 사용에 따른 대가를 말한다.
 - ② 이자의 정당성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 두 정보 모두 기억하고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 ① 이자의 개념은 이런 거구나.
- ② 다음 문장(혹은 문단)에서 이자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설명하겠구나.

[1문단-2]

고전학과 이전의 경제사상에서는 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체계는 별로 없었다.

‘고전학과 이전’이라고 했으니 이 내용을 다 다룬 다 음에는 ‘고전학파의 경제사상’에 대해 다룰 것임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교할 준비**를 해야겠죠.

[1문단-3]

고대와 중세의 경제사상(=고전학과 이전)에서는 ‘화폐는 자손을 남지 못한다.’라는 **화폐의 불임성**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도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고전학과 이전의 경제사상과 고전학파의 경제사상, 정확히 말하면 ‘**이자에 대한 두 경제사상의 관점**’을 비교 할 것이라 예상했으니 표도 미리 그려둘게요.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평소에 지문 읽을 때는 종이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편이고, 시간을 재고 풀거나 실전에서는 머릿속에 정리하는 편입니다.

고전학과 이전	고전학과 (?)
· 화폐의 불임성	
· 이자에 도덕적 정당성x	

[1문단-4]

이와 같은 **이자 수취의 금지에 대한 생각**은 수만 년에 이르는 인류의 경제생활이 기본적으로 **자금자족의 경제 운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자금을 통한 수익 창출의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자 수취의 금지에 대한 생각’은 앞에 나온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도덕적인 정당성이 없다’와 같은 맥락이겠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자금자족의 경제 운영 방식’ 때문이라는 점.

고전학과 이전	고전학과 (?)
· 화폐의 불임성	
· 이자에 도덕적 정당성x => 이자 수취 금지	
· by 자금자족의 경제 운영 방식	
· 자금을 통한 수익 창출의 기회x	

[1문단-5]

이러한 상태에서 이자 수취는 일종의 영합 게임 (zero-sum game) 상황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소득 일부를 돈을 빌려준 사람이 **편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태 = 이자 수취 금지, 자금을 통한 수익 창출의 기회x

편취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한데 해설을 보니 아주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앞서 [1문단-3]에서 이자 수취는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죠. 그러다보니 이런 단어까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고전학과 이전의 경제사상에서는

이자 = 뺨 뜨는 행위

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문단부터는 아마 **이자에 대한 고전학과 경제사상의 관점**이 나오겠죠?! (제발)

[2문단-1]

하지만 산업 혁명으로 인해 경제 성장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상황이 변화**했다.

이번 지문에서도 산업 혁명이 등장하네요. 원인, 계기 정도로만 체크하시고, '상황이 변화'한 걸 표를 통해 예상해 봅시다.

고전학과 이전	고전학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폐의 불임성 · 이자에 도덕적 정당성x => 이자 수취 금지 · by 자금자족의 경제 운영 방식 · 자금을 통한 수익 창출의 기회x · 이자=뺨 뜯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이 돈을 낳는다. · 이자에 도덕적 정당성o => 이자는 야무지게. · by 산업 혁명, 경제 성장 가속화 · 자금을 통한 수익 창출의 기회o · 이자=?

고전학과 이전의 상황을 모두 반전시켜 봤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예상만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독서 지문에서 예상하면서 읽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은 가성비가 좋거든요. 실제로 예상했던 내용이 나오면 더욱 몰입해서, 더욱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상했던 문제가 나오면 쉽게 풀 수 있구요.

반대로 예상했던 내용이나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 타격이 없습니다. '까비'하고 넘어가면 끝이죠.

그러니 지문을 읽을 때, 항상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다음에 나올 내용, 출제될 문제를 예상하시되 **"아님 말고"**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2문단-2]

고전학과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생산 작업 과정의 분업이 생산성의 향상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자금의 축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자금의 축적 -> 돈이 남네 -> 이걸로 뭘 해볼까?
-> 자금을 통한 수익 창출의 기회o
약간 이런 흐름이 예상됩니다. 더 읽어 봅시다.

아, 이전 지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별거 아니지만 @가 '유발'이 아닌 '유발하고'이기 때문에 이번 지문에서는 바꿔 쓰기에 적절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어휘 문제가 나올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2문단-3]

그리고 **자금이 축적**됨에 따라 **경제 규모가 커지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충분한 시장 수요에 맞추어 또다시 분업을 통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성장의 선순환'**이 작동된다고 생각했다.

예상했던 내용이 나올 듯 말 듯...

분업 -> 생산성 향상 -> 자금 축적 -> 경제 규모 및 시장 확대 -> 또 분업 -> 대량 생산 -> ...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것을 '성장의 선순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2문단-4]

이러한 성장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자금이 크게 축적되면서 **잉여 자금이 발생**했고 이를 통해 **이자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당시 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 메커니즘 = 성장의 선순환

자금 축적-> 잉여 자금 발생(= 돈이 남네?)

-> (이걸로 뭘 해볼까?) -> 이자라는 가치 창출

[2문단-2]에서 예상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읽히네요. 표를 좀 볼게요.

고전학과 이전	고전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폐의 불임성 · 이자에 도덕적 정당성x => 이자 수취 금지 · by 자금자족의 경제 운영 방식 · 자금을 통한 수익 창출의 기회x · 이자=뺨 뜯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폐로 가치 창출 가능 · ? · by 대량 생산을 통한 자금 축적 · 자금을 통한 수익 창출의 기회o · 이자=?

예상했던 부분을 지우고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다시 채웠습니다.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이런 식으로 **각 항목을 매칭시켜서 비교**하는 게 좋아요. 독서 지문은 이런 형식에서 잘 벗어나지 않거든요. 강아지와 고양이를 비교하는 지문이 있다고 해볼게요. 강아지의 울음소리, 주식, 다리 길이, 평균 수명을 제시했다면 이후에는 고양이의 울음소리, 주식, 다리 길이, 평균 수명 역시 제시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100%는 아니라서 꼭 이렇게 하라고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편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항목, '이자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과 '이자=뺨 뜯기?'에 대한 정보를 찾으며 읽어 보겠습니다.

[2문단-5]

자금의 축적으로 발생한 잉여 자금을 타인에게 대부하여 수익을 만들 기회를 제공하고, 대부분의 자금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을 이자로 보았다.

‘수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전학과 경제사상에서 생각하는 이자입니다.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고, 너는 그 돈으로 사업해서 수익을 얻었으니 그 대가를 나에게 줘. 그게 이자니까.

‘이자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정보를 찾겠다고 했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장을 읽으면 ‘되어야 하는’에 눈이 가실 겁니다. 이게 정당성이거든요.

내가 너한테 이자를 왜 줘? 편취 아냐?

-> 나한테 빌린 돈으로 수익 창출했잖아.

-> 아 그러네. 줘야 되네. 정당하네.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고전학과 이전	고전학과
· 화폐의 불임성	· 화폐로 가치 창출 가능
· 이자에 도덕적 정당성x	· 이자의 정당성o
=> 이자 수취 금지	=> 수익에 대한 대가
· by 자금자족의 경제 운영 방식	· by 대량 생산을 통한 자금 축적
· 자금을 통한 수익 창출의 기회x	· 자금을 통한 수익 창출의 기회o
· 이자=뺨 뜯기	· 이자=?

이제 마지막 항목만 채우면 되겠네요.

[2문단-6]

급격히 성장하는 경제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 자금을 통해 창출되는 이자가 경제 활동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나오죠?

고전학과 이전의 경제사상에서 이자는 편취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로섬 게임 상황에서의 편취. 일방적인 약탈이죠.

하지만 고전학과에서는 이자가 ‘경제 활동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으로 본 거네요.

일단 고전학과 이전 vs 고전학과 표는 완성됐고. 그럼 이제 다음 문단에서는 뭐가 나올지 예상해 봅시다. ‘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이라는 말에 눈이 가네요. 2문단에서 ‘인식하기 시작’했으니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문단-1]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경제학자인 클라크는 자본재를 이용한 우회 생산에서 이자 성립의 근거를 찾고 있다. 우회 생산은 어떤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공장, 설비 등의 자본재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 상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뜻한다.

‘우회 생산’이 뭔지 몰라서 한 문장 더 읽었습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바로 다음 문장에서 설명해 줄 가능성이 크니까요.

읽어 보니, 우회 생산은 한 마디로 돈 더 들여서 더 많이 만들자! 이런 거네요. 클릭코좌는 여기서 이자 성립의 근거를 찾고자 했구요. 근데 이 흐름, 이 논리. 앞에서 본 것 같지 않나요?

[2문단-5] ‘잉여 자금을 타인에게 대부하여 수익을 만들 기회를 제공하고’ 이거요.

양봉이가 이쭈시개를 만들어 판다고 할게요. 손으로 직접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요. 하루종일 이거만 하면 하루에 1,000개를 만들 수 있고, 개당 1원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1,000원을 벌 수 있네요.

근데 이 지문을 읽은 양봉이가 나봉이한테 1,000만 원을 빌려서 이쭈시개 만드는 기계를 샀어요. 이 기계를 하루종일 돌리면 하루에 이쭈시개 100,0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000원을 버는 거죠.

나봉이는 양봉이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만들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봉이는 나봉이에게 돈을 빌려 자본재를 만듦으로써 100배의 수익을 얻고 있죠. 나봉이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양봉이는 나봉이에게 뭔가 해주는 게 맞고, 그게 이자다. 클릭코좌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거 같은데 계속 읽어 보죠.

[3문단-2]

예컨대 맨손을 사용해 매일 3마리의 생선을 잡는 어부가 어선이나 어망을 구입해서 이를 이용하여 더 많은 생선을 어획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회 생산은 직접 생산의 방식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가져다준다.

이쭈시개 얘기는 괜히 했네요. 바로 다음에 쉬운 예시가 나올 줄은... 아무튼, 이렇게 자본재를 써서 우회 생산을 하면 더 높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다. 요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문단-3]

즉 생산 활동에서 자본재를 도입한 경우의 수익과 자본재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의 수익을 비교하면 자본재를 도입한 경우의 수익이 더 크다. 클라크는 이처럼 자본재의 투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의 차이가 이자 성립의 근거라고 생각했다.

자꾸 당연한 얘기를 하네요.

손으로 이쑤시개 만들어서 하루 1,000원

기계 돌려서 이쑤시개 찍어내면 하루 100,000원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해야겠네요. 이쑤시개 얘기에서 양봉이는 나봉이가 빌려준 돈 덕분에 매일 99,000원을 더 벌 수 있게 됐죠. 이게 지문에서 말하는 '자본재의 투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양봉이는 나봉이에게 뭔가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릭좌도 마찬가지로, 자본재가 투입되어서 돈을 더 벌게 되었으니 뭔가를 줘야 한다 -> 이자를 줘야 한다.(이자 성립의 근거)

[3문단-4]

또한 그는 우회 생산도가 클수록 생산량이 ⑥증가한다고 주장하며, 우회 생산도는 '자본재의 한계 생산량'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자본재의 양이 1단위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생산량>을 자본재의 한계 생산량이라고 정의하고, 투입된 자본재의 양에 따라 증가하는 자본재의 한계 생산량을 이자의 원천으로 제시했다.

생소한 개념이 나오네요. 다음 문장에서 설명해주겠지? 하고 두 문장 읽었습니다.

역시나 설명을 해주는데 정리가 좀 필요해 보여요.

자본재의 한계 생산량 = 자본재의 양이 1단위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생산량

투입된 자본재의 양에 따라 증가하는 자본재의 한계 생산량 = 이자의 원천

그러니까, 한계 생산량은 이쑤시개 만드는 기계 1대를 살 때마다 증가하는 생산량.

투입된 자본재의 양에 따라 증가하는 자본재의 한계 생산량은 이쑤시개 만드는 기계가 총 몇 대인지를 고려한 생산량... 이런 느낌으로 이해했습니다. 틀렸으면 알려주세요. 수정은 못하고 자료 마지막에 추가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클릭좌는 이 늘어난 생산량을 이자의 원천으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1문단-1]

(나) 오늘날 우리는 금융 거래를 통해 가계의 생활 자금이나 기업의 운영 자금의 부족을 해소한다. 그런데 자금의 수요자에게는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이자라 하며, <빌린 자금의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한다.

첫 문장만으로는 중심 소재가 뭔지 파악하기 어려워서 한 문장 더 읽었습니다. '금융 거래'라는 대상이 있지만, 애는 너무 포괄적이라 독서 지문에서 다루긴 모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문장에서 바로 (가)와의 연결고리인 '이자'가 등장합니다. 잠시 떠올려 보면, (가)에서는 이자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자에는 정당성이 없다'는 고전학과 이전의 경제사상과, '이자에는 정당성이 있다'는 고전학과의 경제사상에 대한 비교가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는 이자에 대한 다른 견해가 제시되어 (가)와 (나)를 비교하는 형태는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 문장을 통해 (나)에서는 이자율, 금리에 대해 다룰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깐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자율'에 초점을 맞춰 읽어 보겠습니다.

[1문단-2]

금리는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큰 영향을 끼친다.

저는 이자율이라는 단어가 더 편하긴 한데, 지문에서 금리를 선택했으므로 여기 맞춰야겠네요. 지금부터는 '금리'에 초점을 맞춰 읽어 보겠습니다.

빌린 자금의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금리라고 하는데, 이게 금융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잠깐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죠? 금리가 높아서 이자를 많이 줘야 하는 상황이면 돈을 빌리려는 수요는 줄어들겠죠. 금리가 낮아서 이자를 많이 안 줘도 되면 일단 돈을 빌려서 (가)에서 말했던 '더 많은 수익을 만들 기회'를 노리기 위해 수요가 늘어나겠죠.

[1문단-3]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자금의 수요자 입장에서
는 자금을 빌리는 데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를 줄이게 된다.

금리가 금융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어떻게 영향을 주
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저는 앞 문장만
으로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게요.

[1문단-4]

반면에 자금의 공급자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게 되는데, 이때 금
리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

현재 지문에서 가정한 상황은 금리가 높은 상황입니
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는 수요를 줄이고, 공급자는
공급을 늘리게 되죠. 일반적으로 수요가 공급에 비해 적
으면, 가격을 낮춰 그 균형을 맞추곤 합니다. 지금 상황
에서 가격은 금리죠.

경제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다면 이해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독서 지문에서 이 정도로 설
명을 끝내는 일은 잘 없습니다.(아마도) 그러니 이럴 때
는 “금리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그냥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나가시면 됩니
다.

[2문단-1]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리는 <금융 시장에서의 수
요와 공급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자문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로 인
해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에는 최고 금리를
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문장에는 뭐가 좀 많네요. 꽤 많은 정보와 힌트를
주는 문장입니다.

- ① 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
=> 예외가 있다.
- => 이 지문에서는 그 **예외**에 관심이 더 많을 것.

② [1문단-2] “금리는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큰 영향을 끼친다.”

- => 동시에 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진다.
- => 금리와 수요, 공급은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준다.

③ 이 지문의 핵심은 **‘최고 금리를 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제한’**하는 내용에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독서 지문에서 ‘전통적’, ‘일반적’, ‘통념’, ‘원칙’ 등의
단어, 혹은 이와 유사한 느낌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애네
에 대한 설명은 모두 **빌드업**입니다. 지문에서 정말로 이
야기하고 싶은 건 **‘전통과는 다른 새로운’, ‘일반적이지
않은’, ‘통념과는 다른’, ‘예외’**일 가능성이 몹시 높거든
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그 예외를 바로 제시하고 있습
니다. 바로 **‘최고 금리를 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제한’하
는 경우**이죠.

원칙: 금융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정해지
도록 내버려두되,

예외: 지나치게 높아지면 법으로 제한할게.

지금부터 저의 초점은 법으로 최고 금리를 제한하는
이유, 목적, 방법, 효과, 부작용 등등... 이 **예외에 관련된
모든 것**이 되겠네요.

[2문단-2]

**지나치게 높은 금리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채무
자의 금융 및 경제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
사회의 경제적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최고 금리를 제한하는 이유에 해당하겠네요. 앞 문장
에서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 최고 금리를 제
한한다고 했으니까요.

지나치게 높은 금리

- > 채무자의 금융 및 경제 생활에 악영향
- > 사회의 경제적 안정성 위협

의 과정을 사전에 차단해버리기 위해 법으로 최고 금
리를 제한한다.

[3문단-1]

금융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라 할 수 있는 금리
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금융 상품에 대한 가격 통제
의 결과를 일으킨다.

금리 = 가격 (in 금융 시장)

금리 제한 = 가격 통제 (on 금융 상품)

[3문단-2]

가격 통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품의 가격 형성
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소비자 혹은 생산자에게 공
평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④시행된다.**

신나게 금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재화나 서비스'를 데려왔네요. 조심스레 추측해보면, 상품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 통제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것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금융 시장에서 최고 금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를 하나 그려주세요. 금융 시장 vs 상품 시장의 구도로 짤 수도 있지만, 지문의 흐름이 '최고 금리를 제한'하는 것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최고 금리 제한	가격 통제
· 금융 시장, 금리 · 금리가 너무 높을 때	· 상품 시장, 가격 · 가격이 소비자 혹은 생산자에게 불공평할 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네요. 최고 금리 제한은 금리가 너무 '높을 때' 실행됩니다. 근데 가격 통제는 가격이 너무 높을 때뿐만 아니라 너무 낮을 때도 실행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소비자에게 불공평하다는 것은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이고, 생산자에게 불공평하다는 것은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의미겠죠. 그러니 **가격 통제의 커버 범위는 최고 금리 제한보다 높은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하나 표를 채워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문단-3]
가격 통제의 한 유형으로서 **최고 가격제**가 있다. 최고 가격제는 ①**시장에 상품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물가가 치솟을 때**/ ②**물가를 안정시키고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③**정부가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상한선 이상에서의 거래를 법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은 **조건**이고 ②는 **목적**이고 ③은 **방법**입니다.

읽어 보니 가격 통제의 유형 중 하나인 최고 가격제는, 최고 금리를 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과 되게 비슷하네요. 그리고 [3문단-2]에서 제가 짚었던 포인트대로, 가격 통제는 가격이 높을 때와 낮을 때를 모두 커버하지만 최고 가격제는 가격이 높을 때만을 커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프지만 표를 갈아엎어야겠네요.

최고 금리 제한	최고 가격제
· 금융 시장, 금리 · 금리가 너무 높을 때	· 상품 시장, 가격 · 공급량 절대적 부족 -> 물가가 치솟을 때 · 물가 안정, 수요자 보호 · 정부가 최고 가격 설정 -> 초과 시 거래x

최고 금리 제한과 비교하는 대상이 가격 통제가 아니라 최고 가격제이고, 새로운 정보들이 꽤 추가되었으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문단-4]
최고 가격의 경우 현재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될 때 그 영향력이 발휘된다.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시장 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고 가격을 설정하는 건데, 시장 가격보다 높게 잡으면 의미가 있나요.

[3문단-5]
즉 현재의 시장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고 정부가 이를 낮추고자 한다면 그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최고 가격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가격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요약 설명입니다. 최고 가격을 설정할 때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자꾸 말하는 걸 보니 선지 하나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 오히려 나올 수 있는 그런 느낌.

자 요약 정리까지 끝났으니 이제 다음 문단부터는 최고 금리 제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4문단-1]
정부는 금융 시장에서 자금 공급량이 부족하여 금리가 치솟을 때 ①**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법정 최고 금리를 규정하여 시행한다.

'어떤 타당성'이 뭘 의미하는지 추론하는 문제가 나오겠네요. 이 문제는 지금도 풀 수 있습니다.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법정 최고 금리를 규정하여 시행하느냐? = 법정 최고 금리를 왜 규정하느냐?

바로 왼쪽에 있죠? [3문단-3]의 ②**목적**이요. 물론 3문단은 최고 가격제에 대한 설명뿐이기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문에서는 법정 최고 금리를 규정하는 것과 최고 가격제를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조금 볼까요.

① [3문단-1. 2] 금리를 가격에, 최고 금리 제한을 가격 통제와 대응시킴

② 신나게 금리 얘기하다가 ① 이후 갑자기 가격 통제, 최고 가격제를 데려옴

③ [3문단-3]과 [4문단-1]의 **문장 구조와 표현이 거의 똑같음**

①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너네 금융 상품이나 금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단 어만 봐도 머리 아프지? 좀 더 쉬운 거에 빗대어 설명 해줄랑게 잘 이해해봐.”

②는 이런 느낌이죠.

“최고 금리 제한이랑 비슷한 애 있는데 애로 설명하는 게 너네한테는 더 좋겠다. 애나 재나 다를 거 없으니까 잘 봐.”

③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시장에 상품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

= 금융 시장에서 자금 공급량이 부족

물가가 치솟을 때

= 금리가 치솟을 때

물가를 안정시키고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 어떤 타당성

정부가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상한선 이상에서의 거래를 법으로 금지

= 법정 최고 금리를 규정하여 시행

그냥 완전 똑같지 않나요?

혹시 ‘유형편 01. 자유주의와 포드주의’에서 (나)의 ‘**파국**’을 기억하시나요? 그 지문에서 ‘파국’이라는 단어는 딱 두 번 나왔습니다.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단번에 찾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요. 저는 ‘치솟을 때’라는 표현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그 느낌을 바탕으로 ③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어떤 타당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었죠.

원래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문제 풀이는 다루지 않으려 했는데, 위의 ①~③의 논리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지만 보기 위해 이 ㉠ 문제만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문제 5번, 역시나 ㉠의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선지를 쭉 살펴보니 정확히 있네요.

“자금 공급량의 부족으로 금리가 치솟을 때 금리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자금 수요자들을 보호하고 후생을 증진시켜야 한다.”

[3문단-3]에서 말씀드렸던 조건, 목적, 방법이 순서만 바뀌어서 나왔고, [4문단-1]의 ①~③을 근거로 [3문단-3]의 문장에 금융 시장을 대입하면 정확히 5번 선지가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우리는 ‘최고 가격제’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법정 최고 금리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 금리 제한	최고 가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시장, 금리 · 자금 공급량 부족 -> 금리가 치솟을 때 · 금리 안정, 자금 수요자 보호 · 정부가 최고 금리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시장, 가격 · 공급량 절대적 부족 -> 물가가 치솟을 때 · 물가 안정, 수요자 보호 · 정부가 최고 가격 설정 -> 초과 시 거래x

[4문단-2]

정부는 법정 최고 금리를 통해 시장에서 도출된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금리를 규정하여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고자 한다.

넵, 그렇겠죠. 시장 가격보다 낮은 최고 가격을 설정하는 것처럼, 시장 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최고 금리로 정해야겠죠.

[4문단-3]

이로 보아 법정 최고 금리는 **최고 가격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걸 이제 그냥 대놓고 말해주네요. 지금까지 설명해준 법정 최고 금리와 최고 가격제에 대한 정보들만으로 충분히 추론해 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 = 금융 상품에 대한 최고 가격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4문단-4]

자금 수요자들은 법정 최고 금리를 통해 시장의 균형점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알아두면 좋은 내용>

["제발 이해해 줘"]

어떤 개념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읽는 흐름에 관련된 것입니다. [4문단-1]의 ①~③과 관련된 거죠.

독서 지문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소재는 여러분이 평소에 잘 접하지 못하는, 생소한 것들입니다. 출제자들도 이걸 알고 있죠.

동시에 독서 지문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너 이거 모르지? 내가 설명할 테니까 이해해 줘." '이해해 봐'가 아니라 '이해해 줘'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길 간절하게 바라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죠. 그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① 반복 설명: 표현을 바꿔가며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 첫 번째 설명만으로 이해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설명을 읽을 때는 '뭐야, 이거 아까 설명했던 거 아냐?' 하는 느낌을 받죠.

② 예시 및 사례: '예를 들어', '예컨대' 등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웬만하면 여기 해당합니다. 개념을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가)의 [3문단-2]도 여기 해당합니다. 우회 생산의 개념을 설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죠.

사례는 주로 법이나 경제 지문에서 자주 나옵니다. 예시랑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특정 개념이나 방법론 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죠. 예시보다 좀 더 정성이 들어간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해했지?' 라며 그 사례를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③ "애나 재나 다를 거 없으니까 잘 봐.": (나)의 [4문단-1]에서 간단하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구조도 꽤 자주 등장하는데, 보통 이런 식입니다.

어렵거나 생소한 개념을 설명

-> 그것과 유사성을 가진, 비교적 쉬운 대상을 가져옴

-> 그 둘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음을 언급

-> 비교적 쉬운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다시 원래 설명했던 개념을 가져옴

[4문단-5]

하지만/ 시장에서 결정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부작용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통해 결정된 금리는,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을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금리가 이 정도여야 수요와 공급이 딱 맞다는 뜻이죠. 그런데 법정 최고 금리는 이걸 후려쳐서 낮춰버렸죠.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수요자: 뭐야 금리가 이렇게 낮으면 나 더 빌릴래

공급자: 뭐야 이 이자 받고는 안 빌려주고 말지

그러니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공급량이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4문단-6]

공급량 부족 현상은 일부 자금 수요자들이 여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없도록 만든다.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일부 자금 수요자들은 최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치르거나라도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부의 최고 가격제를 따르지 않는 자금 공급자들에 의해 불법적인 금융 시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첫 문장이 너무 당연한 말이라 한 문장 더 읽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수요자의 입장에서, 돈이 너무 급해서 이자를 50%를 주고서라도 빌릴 의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나라에서 법정 최고 금리를 15%로 제한했어요. 그랬더니 돈을 빌려주는 공급자들이 줄어든 거죠. 이자로 15% 받으니 코인에 넣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공급자들이 많다면요.

즉 법정 최고 금리 이상의 이자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수요자와 법정 최고 금리로는 돈을 빌려주기 싫은 공급자가 만난 겁니다. 불법 금융 시장에서요.

[4문단-7]

자금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법정 최고 금리를 실시하지만/ 부족한 자금을 구하기 위한 수요자들의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법정 최고 금리가 자금 수요자의 후생을 반드시 증진시킨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법정 최고 금리가 항상 그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4문단-5~7]은 법정 최고 금리의 부작용과 한계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상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글의 흐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다루지 않으려 합니다. ‘읽기 전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글 전개 방식이 있다는 걸 억지로 외우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저도 외우지 않았구요.(그래서 다루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저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며 읽는 행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한계 ○○○]

또 경제네요. 한계 비용, 한계 효용 등등 다양한 단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한 단위 늘어날 때, ●의 변화량.

한계 비용: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추가로 생산할 때 필요한 비용의 증가량

한계 효용: 재화를 한 단위 추가로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가량

자본재의 한계 생산량: 자본재의 양이 1단위 증가할 때 생산량의 증가량

이런 느낌입니다. 이 느낌만 알고 계시면 저 한계 뒤에 어떤 단어가 오더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한계 효용과 함께 언급되는 내용으로, ‘한계 효용 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들 아실지도)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1개 먹으면 큰 행복감(효용)을 느끼지만, 2개째부터는 얻는 행복감의 양이 줄어든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재화를 추가로 소비할수록 한계 효용은 줄어든다는 뜻이죠.

비슷한 느낌으로 ‘수확 체감의 법칙’이 있는데, 자본이나 노동 등 생산요소가 한 단위 추가될 때 이로 인해 늘어나는 생산량, 즉 한계 생산량은 점차 줄어든다는 법칙입니다.

주의할 점은, 한계 비용이든 효용이든 생산량이든 그 값이 양수인 한 총 비용, 총 효용, 총 생산량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양이 줄어들 뿐이죠.